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문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분석

2009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전공
배수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분석

이문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배 수 진

인 준 서

배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변인과 부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4세와 만 5세 원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Abidin(1998)이 개발한 PSI를 축소 개

정한 PSI/SF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Blascovich와 Tomaka(1991)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염현경(1998)이 수정하여 개발한 KPDSSS(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har와 Stringfield(1974)가 제작한 유아 행동에 관한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김자숙(2000)이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을 위해서 t-test와 F-test,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았으며 유아의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남아를 가진 아버지보다 여아를 가진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아버지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의 문제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에서는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아버지보다 2년제 이하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유아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유아에게서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스트레스 하위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서 문제행동 중 걱정/불안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문제행동 각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에서 불안/좌절감이 유아의 스트레스 전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적대/공격성에 대한 문제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9
1) 유아의 특성	10
2) 부모의 특성	14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17
3. 유아의 문제행동	21
III. 연구 방법	26
1. 연구 대상	26
2. 연구 도구	27
3. 연구 절차	32
4. 자료 분석	33

IV. 연구 결과	34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34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37
3. 유아의 문제행동	39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4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V. 논의 및 결론	45
1. 논의	45
2.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26
<표 2> 연구 대상 부모의 일반적 배경	27
<표 3> 양육 스트레스 척도 문항 내용	28
<표 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영역별 문항 내용	30
<표 5>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구성 내용	31
<표 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34
<표 7>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35
<표 8>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37
<표 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38
<표 10> 변인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39
<표 11> 유아의 문제행동	40
<표 12>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41
<표 1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간의 상관관계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에서 벗어나 부부와 자녀중심인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여성의 전문 인력 양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 결혼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 부모의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가족에서는 양육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핵가족 형태에서는 점점 더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 분담 및 이에 따른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었다(Lamb, 1986).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는 직업인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면서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생활과 여가 활용 기회를 제약당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더 가중되어가기도 한다(전춘애, 1998).

박응임(1995)은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은 물론 양육행동에도 관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Abidin(1990)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생애에서 첫 5년 동안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어머니-자녀의 관계형성에 결

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취업모의 증가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도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서혜영, 1998). McBride(1989)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아버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부모로서의 자신감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녀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는 부모로서 자신감을 더욱 갖게 되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문제, 품행 등에 대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개인 시간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영혜 외, 1995). 박혜미(199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사업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미정(1995)의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 아버지가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의 경험은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제약을 받게 되며 개인 생활의 자유에 제한을 가지게 되고 자아실현의 과정에 제약을 받기도 하며(전춘애, 1998),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이 맞지 않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는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희선, 1999). 부모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누적 이 된 상태에서 양육을 할 경우, 이성적인 행동보다 감정적인 표출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희정, 1998; 문혜련, 1999). 고성혜(1994)와 김기현(1998)은 자녀의 양육스트레스는 죽음, 이혼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 사건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비해 사소

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유아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듯이, 유아도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유아들은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으며 탄생에서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유아들도 마치 성인들처럼 매일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Brenner, 1984).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놀란 일 등 유아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느껴지는 것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다(최혜경, 2005). 김재은(1998)은 유아는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 능력이나 경험이 미숙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더욱 위험하다고 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유아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제 행동 및 발달 장애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재은, 1998; 홍강의, 1998). 한미현·유안진(1996)은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공격성, 문제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외현적·내면적 행동 또는 표정, 언어로서 나타나게 되고, 또래나 교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회적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최근들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선희(1998)는

만 4, 5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유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남아가 여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를 가진 유아가 비취업모를 가진 유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으며, 남아의 어머니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배계영(2004)은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느꼈으며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남아, 형제가 많은 유아, 그리고 가게 수입이 적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최근에 대가족 체제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취업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양육지식과 정보 결핍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박혜원, 2003).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한 그릇된 양육방식이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내면화 문제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3~7%의 유아가 이런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을 보여 성인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경숙, 2004; 황혜신, 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영현(2006)은 만 5세 유아와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와 문제행동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수가 3명 이상일 때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 행동’, ‘불안 행동’, ‘산만 행동’ 모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유아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연(2000)의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를 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이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유아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머니는 유아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화남, 실망감, 망설임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남궁연경(2006)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교사는 불안 행동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어머니는 의존행동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고 한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울화역제력, 피해의식과 현실감, 정체감 공격성, 지적능력, 주의력, 의존, 체력순서로 나타났다. 교사와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불안’ 행동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체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개선되어야 할 유아의 문제행동에서는 남아는 주의력, 여아는 자아력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출생순위에 따라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교사는 첫째 아이와 외동아이에게 주의력 개선을 어머니는 첫째 아이와 외동아이에게 자아력 개선을 인식하였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이지희, 2005; 정영애, 2004; 최연화, 1999)에서 이루어졌던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 또한 아버지의 학력, 경제적 지위와 결혼과

직장 만족도 등 개인적 배경 요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인식에 따라 유아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유아변인에 따른 연구 결과는 있으나 부모의 변인과 함께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변인과 부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부모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특성, 부모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능성, 억압성, 애착, 침체성, 배우자관계, 사회적 고립 등 부모의 특성 활동성, 부모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 등 유아의 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일들로 유아가 좌절감, 분노심, 공포심,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등을 경험하게 하는 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비난이나 공격적 상황에 접할 때의 스트레스, 불안과 좌절감을 경험할 때의 스트레스, 자존심이 상할 때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3)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규범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으로 유아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 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낮게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로 구분한 것으로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으로 걱정-불안 행동을 말하며, 외현화 문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적대-공격성행동과 과잉행동-산만행동으로 구분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가정이며 부모는 유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부부의 생활 형태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 중심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일상적인 행동 및 인식의 형태를 수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부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숙자, 1992).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배경이 되며 부모의 주변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가족체제내의 긴장과 압력으로 인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이다(Crnic, 1991).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연관된 신체적 요구, 부부관계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경제적 비용, 생활에서의 제한 등 긴장요소가 증가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전춘애, 1998; 조경순, 1996).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영미, 1995).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지각과 반

응이 나타나고 어머니는 강압적이고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사용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동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양육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Abidin, 1990).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아의 특성으로는 유아의 성별, 나이, 형제유무 등이 있으며 부모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나이, 어머니의 취업유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유아 특성

부모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주는 유아의 특성 중 유아의 연령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유아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홍희란(2000)의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만 4세와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만 5세 유아의 부모가 만 4세 유아의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홍희란(2002)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레스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순진(2008)은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효용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이 요구하는 정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선희(1999)의 만 4세와 5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만 4세의 어머니가 만 5세의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2~5세 유아의 어머니와 그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 관련 변인의 인과관계의 연구에서 만 3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유우영(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유아의 특성 중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신숙재(1997)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뿌리 깊은 남아 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남아의 유아가 부모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모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즉,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사상으로 남아에 대한 기대치가 여아보다 높으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성별에 따른 스트레스는 남자아동을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여아를 키우는 어머니에 비해서 아동의 수용적 태도나 주의산만 성향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와 5세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홍희란(2002)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이명희(1999)의 부-모간 자녀 양육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아의 부모가 남아의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여아의 부모들이 남아의 부모들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여아에 비해 남아를 독립심이 강한 유아로 양육하고자 여아보다 엄격하게 키우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아가 무엇을 요구한 경우의 수용 횟수가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영현(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유무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보면 배계영(2004)은 만 5세와 6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형제 수에 따른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경우 형제가 있는 부모가 외동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란(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에게 형제가 있는 부모가 외동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돌볼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춘자(2009)는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감과 재정적 뒷받침, 활동 제약 등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변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선미정(1995)의 취학전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자녀 수가 하나인 어머니는 그 만큼 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기 때문에 유아가 어머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Abidin(1990)이 제시한 유아의 기질에 따른 활동성, 부모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의 요인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현정(1996)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중 유아스트레스 행동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아특성이었으며 그 중 유아 특성의 하위 변인인 감정 변인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 5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정 변인에 유아특성

의 하위 변인인 수용성 변인이 부가되었을 때 9%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아의 특성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Cutron와 Thoutman(1996)은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어머니의 통제를 유발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영아의 어머니는 대부분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머니가 영아를 통제하려고 하면 영아가 이러한 통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머니-영아간의 갈등 관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성혜(1994)의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활동이 지나쳐 소란스런 행동을 자주하거나 공격적인 경우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활동성이 높은 유아의 부모는 정상아의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kley, 1981).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상아와 과활동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Johnston과 Mash(1983)도 정상아 부모에 비해 과활동아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Mills와 Rubin(1990)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부모가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반대의 기질적 표현을 보이는 유아, 즉 위축된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는 역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어머니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 대체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Chetwynd, J 1985).

2) 부모의 특성(parent characteristics)

부모의 연령과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남유리(1989)는 취업모와 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상의 변화나 문제가 질적·양적으로 증가되어 긴장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난다고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경아(1990)의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의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한다. 반면 이안나(1991)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의 연구에서는 30대 주부보다 20대의 주부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부족에 따른 가정의 운영이 미숙과 결혼 및 출산 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Field, Widmayer, Stringer 와 Ignatoff(1980) 역시 젊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에게 비현실적 기대를 하므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았다(김기현, 2000). 이해옥(2003)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화, 이경우, 이기숙(1991)의 한국 아버지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며 그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남유리(1989)의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량을 부여하며 학

력이 높을수록 낮은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배종열(1985)은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양과 심리적인 압박감등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능력이 풍부하며 자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선미정(1994)은 취학 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인을 부모의 교육수준이라고 보았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며 나아가 부모자신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남궁기순(2005)은 고졸의 학력을 지닌 부모보다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진(2005)은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하여 비교한 연구 결과,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미(1994)의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희란(2002)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1996)이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취업 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많은 시간동안 어머니 부재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엄선희, 1998).

이밖에도 부모의 성향, 사회적 지지도, 가정 환경적 변인, 배우자와 관계, 건강 등 부모의 특성이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Abidin(1990)은 부모의 특성을 부모의 인성 및 병리학적 변인과 상황적인 변인 두 가지로 나누었다. 부모의 인성 및 병리학적 변인은 침체성, 유능성, 애착으로 이들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게 인식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상 등을 말한다. 성격적으로 부정적 경향이 많은 어머니는 영아를 더 까다롭게 지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evitt, Wever & Clark, 1986). 우울성향이 강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충족시킬 만한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행동에 위축되어 있다(Webster-Stratton & Hammond, 1988). 또한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지적한다(고성혜, 1994). 안영희(2008)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 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서 신경증이 높은 어머니는 쉽게 흥분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이런 특성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반면,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타인과의 쉽게 상호작용을 원하고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과의 교류과정에서 일부 해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특성 하위 변인 중에 상황적인 변인에 해당되는 특성 중 부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배우자 관계이며 배우자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해줄 때,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한 참여 및 지지가 적을 때 어머니의 양육부담의 비중은 늘어나며 결혼 자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박해미, 1994). 또한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도에서 Crinic 과 그의 동료들(1993)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손현숙(199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성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듯이 유아들도 일상생활, 부모와 관계, 질병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란 유아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경험하는 일중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사건들로서 유아로 하여금 분노감이나 좌절감, 공포심, 소외감, 우울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 등을 유발

시키는 상태이다(염현경, 1999).

유아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변인과 가족과 관련 스트레스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개인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유아의 연령, 성별을 들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정은(1992)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기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높은 연령일수록 학습능력과 자아통제기능, 자율성 등 발달되므로 유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며 이 기대에 맞춰 주어지는 발달적 과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타났다. 최혜경(2005)은 만 4세~만 6세 이상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은 유아(6세 이상)가 낮은 유아(5세 이하)보다 일상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5세유아가 만 4세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홍희란(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김수미(2007)는 만 4, 5, 6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연구에서 유아의 전체 일상스트레스와 연령이 모두 부적인 상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고영미(1999)는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 변인과 성별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인 스트레스 행동 중 타인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과 역기능적인 언어행동이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홍희란(2002)의 연구에서도 남

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이 남아와 여아의 생득적 차이와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환경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아와 여아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안라리, 1995). 반면, 박미정(2001)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연구결과에서는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전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박성혜(2002)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에 따른 연구결과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 관련, 가족관련, 학교 관련 스트레스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황미섭(2000)의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유아는 가족과 관련된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를 보이는데, 하위 변인으로는 자녀의 형제유무,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을 들 수 있다.

형제유무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면 홍희란(2002)의 연구에서 형제가 있는 유아가 외동인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관심이 다른 형제에게로 분산되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유아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태희(2004)는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연구에서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외동아보다 형제 있는 유아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동인 유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분산되거나 일상생활 속

에서 비교될만한 대상이 없는 반면, 둘째 이하 유아의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분산되는 부모의 관심, 순위형제와의 비교, 어린동생에게 집중되는 가족의 관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외동이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은(1992)은 형제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간에 위치한 유아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첫째나 막내에게 정서적 지지를 많이 보일 경우, 중간에 위치한 어린이는 부모와 자신의 충성-관여의 계약에 위기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한 Elkind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서 염현경(1998)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결과, 부모의 연령이 높으면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환경과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박윤조(2007)의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에게 연령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결과를 보면 천민필(1996)의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과잉기대를 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태희(2004)의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모두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학력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유아의 스트레스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므로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학력이 높은 부모의 유아는 학력이 낮은 부모의 유아보다 스

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박미정,2001). 반면, 고영미(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고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면, 엄선희(1999)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유아의 경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1992)은 취업모를 가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직장생활에 바쁜 어머니들이 유아에 대한 관심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비 취업모를 가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가 더 낮게 해석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김정아(1996)의 어머니의 의사유통형태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와 홍희란(200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내·외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하며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자와 교사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아의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대단히 광범위한 동시에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학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는 아직도 내려지지 못

한 상태이다(송의열, 이미자, 2001).

표미정(1997)은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동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이며 습관상의 이상이 있는 행동으로 의미하였다. 김재은(1997)은 유아들의 행동 중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부모나 교사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가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연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나타낸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를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아는 주로 과잉운동, 미숙, 공격성 등 외현적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여아는 불안, 우울, 정신 신체 증상 등 내재적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홍강의, 1998). 조정에(2000)의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연구에서 전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자(1986)는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행동양상의 정신신체 성향요인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정서불안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강혜경(2003)은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연구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은 남아가 공격행동 및 산만행동, 전체행동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남아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문제행동을 많이 가지는 반면 여아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가진다고 해석된다. 서수경(1993)은 유아의 행동

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이 여아보다 남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활동수준, 높은 반응강도, 높은 주의 전환성, 낮은 적응성 등 기질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에서 이미자(2000)의 만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평정에서 5세 유아들이 4세 유아들에 비해 ‘심한 위축, 자학, 저항’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경숙(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4세 유아들이 5세 유아들보다 더 심각한 행동문제 출현의 경향이 높았다고 제시하면서 5세 유아들이 4세 유아들보다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되고, 유치원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며 집단 활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칙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은 공격행동 및 불안행동, 산만행동, 전체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 교사들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연령에 맞게 그 정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아의 가정환경적인 변인으로는 유아의 형제유무,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로 나타난다.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를 본 결과, 남궁연경(2006)의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출생순위에 따라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서 살펴보면 교사는 첫째, 외동아이에게 주의력을 개선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외동아이에게 자아력을 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였다.

부모의 연령에서 임민택(2006)은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심한의존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문제행동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권기숙(1983)의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연령은 30세 이전의 어머니보다 30세 이상의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이 사회적응력이 높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성격이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학력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를 본 결과, 양명숙(1985)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고 사회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문제행동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상류층 자녀들은 정서적, 신경증적 문제를 갖는 반면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외향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숙(1994)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기준 및 사회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며, 독립된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지원하며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찬숙(2008)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결과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내재화 문제행동 중 신체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홍경자(1986)의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행동 점수를 학력이 낮은 경우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 교육수준에서도 학력이 높은 경우에 행동문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를 본 결과, 임민택(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지만 자녀와 정규적 시간을 갖고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는 등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유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관계는 질면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찬숙(2008)의 연구에서 내현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공격적 행동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유아가 어머니가 취업한 유아보다 높았으나 어머니 취업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 유아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문제행동이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문제행동 원인은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4세 80명, 만 5세 80명의 원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60부씩 총 32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28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8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한 쪽 부모만 회수된 경우, 면접 중 문제가 있었던 유아의 설문지등 40부를 제외한 아버지용 설문지 120부, 어머니용 설문지 120부를 합하여 총 240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연령	만5세	64(53.3)
	만4세	56(46.7)
	계	120
성별	남자	54(45.0)
	여자	66(55.0)
	계	120
형제유무	없음	31(25.8)
	있음	85(74.2)
	계	116

표 1에서 보듯이, 연구 대상 유아들의 성비는 남아가 45%(54명), 여아

가 55%(66명)이었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만 4세 유아가 46.7%(56명), 만 5세 유아가 53.3%(64명)이었다.

<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아버지(%)	어머니(%)
연령	30세이하	0(0.0)	14(11.7)
	31세~40세 이하	94(78.3)	55(45.8)
	41세~	26(21.7)	51(42.5)
	계	120(100.0)	120(100.0)
학력	고졸	0(0.0)	31(25.8)
	2년제 졸	54(45.0)	41(34.2)
	4년제 졸업이상	66(55.0)	48(40.0)
	계	120(100.0)	120(100.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68(56.7)
	미취업모		52(43.3)
	계		120(100.0)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에서 보듯이, 취업을 한 어머니는 56.7%(68명),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43.3%(52명)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35세에서 39세가 78.3%(94명)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31세에서 39세 45.8%(55명)로 가장 많았다.

2. 연구 도구

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SF)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bidin(1998)에 의해 개발된 이 도구는 Parenting Stress Index를 1990년에 94문항이었던 PSI를 36문항을 축소 개정한 것이다. PSI/SF는 우리나라에서 엄선희(1999)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실제 PSI/SF 질문지는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하위 스트레스 요인으로 각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전체 Cronbach 's α 의 값은 .89이며 부모의 특성은 .89, 부모의 특성은 .84였다.

PSI/SF의 하위 영역 구성과 자세한 설명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양육 스트레스 척도 문항 내용

스트레스 하위 변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의 특성	유능성	1-3	.89
	억압성	4-7	
	애착	8-9	
	침체성	10-11	
	배우자관계	12	
	사회적 고립	13-15	
	활동성	16-17	
유아의 특성	부모강화	18-21	.84
	감정	22-25	
	수용성	26-28	
	적응성	29-32	
	요구성	33-36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KPDSS(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는 Blascovich와 Tomaka(1991)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염현경(1998)이 수정하여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이다. 이 도구는 홍희란(2002)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다.

유아용 검사지와 보조 자료로 사용되는 남아·여아용 그림카드, 스트레스 정도 측정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언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그림을 이용하면 면접자가 검사에 응할 때, 흥미와 관심이 유발되며 검사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희란, 2002; 재인용).

이 검사지는 만 3세에서 만 6세용이며 검사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이다. 검사자와 면접자의 레포형성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레포형성이 검사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검사지의 내용은 세 가지 하위 영역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과 ‘불안-좌절감 경험함’, 그리고 ‘자존심 상함’이며, 문항 수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지의 점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0점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나타내는 4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0점부터 92점까지이다.

KPDSS 신뢰도는 도구를 번안한 염현경(1998)에 의해 Cronbach $\alpha = .87$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80, .68, .66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alpha = .87$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88, .82, .79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각 요인별 문항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영역별 문항 내용

내 용		Cronbach's α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때리거나 꼬집을 때 · 엄마 아빠께 야단맞을 때 · 엄마 아빠께 매 맞을 때 · 선생님께 야단맞을 때 · 친구와 싸울 때 	.88
불안 좌절감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원하는 것을 엄마나 아빠가 사주지 않을 때 · 집에 혼자 있을 때 · 어두운 곳에 있을 때 · 친구들이 놀릴 때 · 가족들이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예:만화)을 못 보게 하거나 보고 있는데 채널을 바꿀 때 · 밖에서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할 때 · 친구나 동생이 장난감을 빼앗아 갈 때 · 밖에서 놀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수 없을 때 · 내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지 않을 때 ·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을 때 · 엄마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할 때 혹은 같은 말 두 번 이상 할 때 	.82
자존심 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놀이를 끼워주지 않을 때 ·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어떤 것(예: 그림그리기, 만들기, 공부 등)에 대해 못 한다고 말할 때 · 친구들은 잘 하는데 나는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 엄마나 아빠가 친구나 형제보다 내가 더 못하다고 말할 때 ·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지(사랑하지)않는다고 생각할 때 · 엄마나 아빠께 칭찬 받고 싶은데 칭찬 받지 못할 때 	.79

3)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har & Stringfield(1974)가 제작한 유아 행동에 관한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김자숙(2000)이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만3~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한 5단계 평정 척도로서 유아의 특정 행동이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교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 도구는 적대-공격행동, 걱정-불안 행동, 과잉-산만행동의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의 전체문항은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질문에 대한 평점 척도와 동일한 순서로 배점되어 높은 점수의 유아일수록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평가척도전체에 대한 요인별 내적 일치도를 알려주는 Cronbach $\alpha = .91$ 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82, .84, .88이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하위 영역 구성과 자세한 설명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구성의 내용

유아의 문제행동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적대-공격행동	3, 4, 5, 12, 16, 20, 22, 26, 27, 28, 30	11	.82
걱정-불안행동	6, 7, 9, 10, 14, 19, 23, 24, 29	9	.84
과잉-산만행동	1, 2, 8, 11, 13, 15, 17, 18, 21, 25	10	.88
전체		30	.91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1)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4세와 만 5세 유아 6명과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모용 설문지, 유아용 스트레스 검사 도구, 유아의 문제행동 검사 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를 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이해도를 질문하였다. 질문지에 대하여 부모들은 대체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방식 질문에 대한 이해도는 답하기가 모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방식 질문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유아용 검사지에서 연구대상이었던 부모들의 자녀인 만 4세 3명, 만 5세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면접 방법은 남아용·여아용 그림 카드를 보여 주며, “그런 적 있었니?”, “한 번도 없었니?”, “그런 일이 있으면 OO는 어때니?”, “얼마만큼 기분이 안 좋으니?” 라고 질문하여 유아의 답변에 따라 검사지에 체크하며 유아의 이해도를 알아보았다. 면접을 하기 전에 유아와 검사자의 레포형성을 위하여 유아의 관심거리 등을 이야기하며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었다. 면접시간은 만 4세의 유아는 평균 15~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만 5세의 유아는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유아 문제행동 검사 도구는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세 검사도구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만 4, 5세 유아 160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만 4세, 5세와 유아들의 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PSI/SF 질문지를 배부하고 2~3주 동안의 회수기간을 정하였다. 그 중, 280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던 질문지 40부를 제외한 240부의 부모용 질문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각 유아의 면접시간은 평균 15~20분이 소요되었다.

문제행동 질문지는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를 교사가 표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부모의 변인(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N=12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M	SD	t
유아 특성	아버지	2.06	.69	-1.54
	어머니	2.13	.67	
부모 특성	아버지	2.24	.57	-7.1***
	어머니	2.69	.65	
전체	아버지	2.12	.58	-4.69***
	어머니	2.32	.58	

*** $p < .001$

표 6에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각하는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4.69, p < .001$). 그리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부모가 유아의 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는 아버지, 어머니간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부모특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1, p < .001$).

1)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F-test를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N=120

변인		구분	M	SD	t/F
유아	성별	남아	2.00	.56	2.14*
		여아	2.22	.58	
	연령	만5세	2.16	.56	.90
		만4세	2.07	.60	
	형제유무	있다	2.15	.58	.85
부모	아버지 연령	35세 미만	2.15	.63	.58
		40세 미만	2.06	.52	
		40세 이상	2.20	.60	
	아버지 학력	2년제 졸	2.25	.61	2.22*
		4년제 졸업이상	2.02	.53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2.04	.53	1.68
미취업모		2.22	.63		

* $p < .05$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와 부모변인 중 유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남아 아버지보다 여아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평균 점수($M=2.22$, $SD=.58$)가 조금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4$, $p<.05$).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2년제 졸업을 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 점수($M=2.25$, $SD=.61$)가 조금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2$, $p<.05$). 유아의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F검증을 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M=2.46$, $SD=.58$)가 취업을 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점수($M=2.21$, $SD=.56$)보다 조금 더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4$, $p<.05$). 그 밖에 유아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N=120

	변인	구분	M	SD	t/F
유아	성별	남아	2.25	.61	1.08
		여아	2.37	.55	
	연령	만5세	2.32	.55	.13
		만4세	2.31	.62	
	형제유무	있다	2.31	.59	.23
		없다	2.34	.54	
부모	어머니 연령	30세미만	2.43	.84	.63
		35세미만	2.34	.51	
		35세이상	2.26	.57	
	어머니 학력	고졸	2.27	.56	.65
		2년제 졸	2.47	.60	
		4년제 졸업이상	2.22	.5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2.21	.56	2.34**	
	미취업모	2.46	.58		

** $p < .01$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어떠한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유아의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1.11이고 표준편차는 .61이었다. 하위영역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의 평균점수(M=1.63, SD=.80)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불안·좌절감 경험함’의 평균점수(M=1.06, SD=.66)였으며, ‘자존심상함’의 평균점수(M=.76, SD=.69)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N=120		
영역	M	SD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1.63	.80
불안·좌절감 경험함	1.06	.66
자존심 상함	.76	.69
유아의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	1.11	.61

1) 변인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각 하위 요인인 비난, 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 좌절감경험, 자존심 상함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 대한 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나있듯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는, 취업을 한 어머니의 평균점수(M=1.25, SD=.52)가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평균점수(M=.91, SD=.6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15, p<.05$). 이 결과, 취업모가 취업을 하지 않은 비 취업모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변인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변인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N=120

	변인	구분	M	SD	t/F
유아	성별	남아	1.11	.60	.11
		여아	1.10	.63	
	연령	만5세	1.13	.64	.44
		만4세	1.08	.59	
	형제유무	있다	1.09	.61	.31
부모	아버지 연령	35세미만	1.15	0.62	2.88
		40세미만	1.19	0.59	
		40세초과	0.86	0.59	
	아버지 학력	2년제 졸	1.17	.64	1.03
		4년제 졸업이상	1.05	.59	
	어머니 연령	30세미만	1.08	.64	.96
		35세미만	1.03	.60	
		35세초과	1.19	.62	
	어머니 학력	고졸	1.14	.71	.11
		2년제 졸	1.08	.55	
		4년제 졸업이상	1.11	.61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1.25	.52	3.15*
	미취업모	.91	.67		

* $p < .05$

3.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문제 행동 정도가 어떠한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아의 문제 행동

N=120

유아의 문제 행동	M	SD
적대-공격 행동	2.10	.81
걱정-불안 행동	2.14	.79
과잉-산만 행동	2.27	.75
유아의 전체 문제 행동	2.17	.72

표 11에서 유아의 전체 문제 행동 점수의 평균은 2.17이고 표준편차는 .72다. 하위 영역 중 과잉-산만 행동의 평균점수(M=2.27, SD=.75)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걱정-불안의 평균점수(M=2.14, SD=.79)가 높았으며, 적대-공격성 행동의 평균점수(M=2.10, SD=.8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 행동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각 하위 요인인, 적대-공격 행동, 걱정-불안 행동, 과잉-산만 행동과 유아의 문제 행동 전체에 대한 유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의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N=120

변인	구분	M	SD	t/F
성별	남아	2.38	.69	2.97**
	여아	2.00	.71	
연령	만5세	2.27	.71	1.62
	만4세	2.05	.73	
형제유무	있다	2.14	.69	.83
	없다	2.26	.82	
아버지 연령 ¹⁾	35세 미만	2.18	.69	.26
	40세 미만	2.20	.77	
	40세 초과	2.08	.71	
아버지 학력	2년제 졸	2.33	.83	2.23*
	4년제 졸업상	2.04	.59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1.99	.87	1.11
	35세 미만	2.11	.58	
	35세 초과	2.27	.82	
어머니 학력	고졸	2.54	.87	6.31**
	2년제 졸	1.97	.64	
	4년제 졸업상	2.09	.61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2.25	.78	1.43
	미취업모	2.06	.63	

* $p < .05$, ** $p < .01$

표 12에서 보듯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서는 여아의 평균점수(M=2.00, SD=.71)보다 남아의 평균점수(M=2.38, SD=.69)가 조금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97$, $p < .01$).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차이에 대한 결과,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아버지의 평균점수(M=2.04, SD=.59)보다 2년제 졸업을 한 아버지의 평균 점수(M=2.33, SD=.83)가 조금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23$, $p < .05$).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고졸인 어머니의 평균점수(M=2.54, SD=.87)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 $p < .01$).

이러한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남아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r=.68, p<.001$)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스트레스 하위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과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89, p<.001$).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어머니 스트레스 하위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87, p<.001$).

이러한 결과, 유아의 특성이 까다로울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서 문제행동 중 걱정/불안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r=.20, p<.001$). 이러한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로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상적 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가 경험하는 생활속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문제행동 각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에서 불안/좌절감이 유아의 스트레스 전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94, p<.001$). 이는 유아가 일상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문제행동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적대/공격성에 대한 문제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는 높은 상관관계($r=.94,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유아의 적으로 인하여 유아의 문제행동도 높은 상관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아버지 스트레스				어머니 스트레스				유아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부모의 고민 ¹⁾																
부모-유아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²⁾	.38***															
유아의 까다로운특성 ³⁾	.50***	.70***														
아버지스트레스 전체 ⁴⁾	.71***	.86***	.89***													
부모의 고민 ⁵⁾	.37***	.34***	.45***	.45***												
부모-유아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⁶⁾	.19*	.67***	.49***	.56***	.42***											
유아의 까다로운특성 ⁷⁾	.32***	.58***	.71***	.66***	.35***	.70***										
어머니스트레스 전체 ⁸⁾	.35***	.65***	.67***	.68***	.72***	.83***	.87***									
비난,공격적 상황접합 ⁹⁾	-.07	-.04	-.02	-.05	.00	-.07	-.02	-.05								
불안,좌절감 경험 ¹⁰⁾	-.17	-.06	-.03	-.09	-.11	-.10	-.09	-.14	.60***							
자존심 상함 ¹¹⁾	-.13	-.01	-.03	-.06	-.05	-.09	-.16	-.13	.50***	.72***						
유아스트레스 전체 ¹²⁾	-.15	-.05	-.03	-.09	-.07	-.10	-.10	-.13	.77***	.94***	.84***					
적대/공격성 ¹³⁾	-.06	-.02	.05	-.01	-.07	-.02	.02	-.04	.18*	.30***	.34***	.32***				
걱정/불안 ¹⁴⁾	.02	.01	.20***	.09	.00	.04	.15	.06	.22*	.27**	.36***	.32***	.78***			
과잉행동/산만 ¹⁵⁾	-.06	-.06	.05	-.03	-.00	-.00	.02	-.01	.22*	.27**	.36***	.32***	.80***	.75***		
유아문제행동전체 ¹⁶⁾	-.04	-.02	.10	.01	-.03	.00	.06	.00	.22*	.30***	.38***	.35***	.94***	.90***	.92***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변인과 부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문제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보다 더 높았다. 이는 배계영(2004)의 연구와 Webster-Stratton(1990)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서 여아를 가진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부모변인에서는 아버지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있어서 여아의 부모들이 남아의 부모들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여아에 비해 남아를 독립심이 강한 유아로 양육하고자 여아보다 엄격하게 키우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남아가 무엇을

요구한 경우보다 여아가 무엇을 요구한 경우의 수용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명희, 1999).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신숙재(1997), 엄선희(1999), 홍희란(2002)의 연구의 맥을 같이 한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남유리(1989), 배종열(1985)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 유아의 연령, 부모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아의 변인(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과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변인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유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며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엄선희(1999)와 이정은(1992)의 연구에서도 취업모 유아가 비취업모 유아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시간적인 제한으로 어머니와 함께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못하여 유아에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된다.

다섯째,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유아의 변인에서는 여아보다는 남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경숙(1993)과 이미자(2000)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Werry와 Quay(1979)의 연구결과에서도 공격적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의 남자 유아 문제행동 특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과잉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변인에서는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아버지보다 2년제 졸업한 아버지를 가진 유아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유아에게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이미숙(1994)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 기준 및 사회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며, 독립된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지원하며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선미정(1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버지가 유아의 행동을 다루기 힘들며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아와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서 또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유아와 함께 부딪히며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는 유아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홍희란, 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박성혜(2002)의 연구에서도 하위영역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문제행동 각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에서 불안/좌절감이 유아의 스트레스 전체와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부모와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엄현경, 1998).

유아의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적대/공격성에 대한 문제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신은영(1998)과 정동화(1995)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불안행동', '산만행동'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았으며 유아의 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남아를 가진 아버지보다 여아를 가진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아버지 자신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 유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변인에서는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의 문제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에서는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아버지보다 2년제 이하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의 유아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유아에게서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여섯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스트레스 하위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까다

로운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까다로운 특성에서 문제행동 중 걱정/불안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문제행동 각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에서 불안/좌절감이 유아의 스트레스 전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각 하위요인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적대/공격성에 대한 문제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 부모들로 한정시켜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역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과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의 변인을 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직업종류,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수입 등 다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개인적인 배경을 다양화하여 살펴본다면,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참여관찰, 심층적인 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문제행동 파악을 위해서 담임교사와 부모가 함께 조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혜경(2003).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 행동.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기숙(1983). 부모의 성격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아연(199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오균(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지각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숙(1994).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웅(1973). 가정환경변인과 학령전 아동의 지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난영(2002).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리진(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희(199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란(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미(2007). 보육시설 이용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은(1998). 어린이 발달과 스트레스. 제6회 학술대회. 유능한어린이(Competenr Children)로 키우기. 삼성복지재단.
- 김정아(1996). 어머니의 의사유통형태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춘자(2009).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18, 21-37.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 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희정(1998). 유아의 기질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교육학 사전 편찬위원회 편(1984).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남궁기순(2005).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연경(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취업주부는 서울시내일부 여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14, 109-122.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혜(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숙자(1994). 한국 가족론. 도서출판 까치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조(2007).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원(2003). 유아기 부모 양육 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집. 제 4권 제2호, pp.85-95.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계영(2004).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구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종열(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 전문대학 논문집. 15, 33-41.
- 성영혜 외 7인(1995). 아빠의 스트레스. 서울: 창지사.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은영(1998).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의열, 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논문집. 25, 153-177.
- 안라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영희(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명숙(198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권위적 태도와 양육태도 불일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영현(2006).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숙(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1, 53-73.
- 이경우, 이은화, 이기숙(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유아교육학회. 33, 105-137.
- 이명희(1999). 부-모간 자녀 양육스트레스 지각수준의 차이 분석.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자(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1994). 자기효능감이 수학부안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안나(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옥(1996).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양육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 논집. 8, 25-42.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1992).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찬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 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태희(2004).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해옥(2003). 맞벌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1997).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민택(2006). 가정환경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3-188.
- 유우영(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6-1, 51-61.
- 윤영현(2006).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동화(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불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진(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애(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연(2002).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유아간의 조화적합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천민필(1994).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연화(1999).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2005).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표미정(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미섭(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73-88.
- 홍강의(1998).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및 대처 방안. 제 6회 학술대회 유능한 어린이(Competent Children)로 키우기. 삼성복지재단
- 홍경자(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Boston, MA: Lexington Books.

- Chetwynd, J.(1985). Factors contributing to stress on mothers caring for an intellectually handicapped child.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5. 295-304
- Crinic, K, A, & Greenberg, M.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3-1637.
- Crinic, K, A, & Booth, C. I.(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42-1050
- Cutrona, C. E., & Th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 Elkind D.(1987).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 . 이현순, 심성경, 원영미(공역). 서울: 창지사.
- Johnston, C.,& Mash, E .J.(1983).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Lamb, M. E(1986). The Changing Roles of the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ed. M. E. Lamb, New York John Wiley & Son. 3-57.
- Levitt, M. J., Wever, R. A., & Clark, M. 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cBride, B. A.(1989). Stress and father's parental competence,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and parent educator. *Family Relation*, 38, 385-389.
- Mill, R. S. L, & Rubin, K, H(1990). Parental beliefs about py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Quay, H. C, & Werry, J. S (1979).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Webster-Stratton, C.(1990).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behaviors and parent's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09-915.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198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299-315.

ABSTRACT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infant stress and infant problematic behaviors depending on the parent factors and infant factors. Also, it has been aimed at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infant daily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s so that it can help understand these matters.

The study issues have been set up according to this purpose.

1.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parenting stress depending on the infant factors(infant gender, ag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iblings) and the parent factors(parent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ther's employment)?

2.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infant daily stress depending on the infant factors(infant gender, ag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iblings) and the parent factors(parent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ther's employment)?

3.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infant problematic behaviors depending on the infant factors(infant gender, ag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iblings) and the parent factors(parent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ther's employment)?

4. Are there any relation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the infant daily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s?

This study has been aimed at 4 or 5 year-old infants and parents at day-care centers in districts of Seoul. PSI/SF which has been revised PSI by Abidin(1998) has been used to measure the parenting stress and KPDSS(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which has been developed by Hyun-kuyng yum and Soo-jung Lee, suitable for Korean, has been utilized to measure the infant daily stress based on the study by Blascovich and Tomaka(1991).

To measure that the infant problematic behaviors, revised version of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Behar and Stringfield, 1974) by Ja-suk Kim(2000) has been used.

T-test and F-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to analyze the corrected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more stress which originates from a mother rather than a father in the parenting stress regarding the parent factors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stress from the infant factors.

Second, in case of parenting stress, fathers who have a daughter have shown more stress than ones who have a son. The less a father have an educational background, the more he gets stress.

Third, in case of parenting stress for mothers, there is no difference in infant factors and unemployed mothers have more stress than employed mothers.

Fourth, concerning the infant daily stress, there is no difference in infant factors and the infants of employed mothers get more daily stress than ones of unemployed mothers.

Fifth,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a daughter appear compared with a son. In parent factors, there are more problematic behaviors in case that the fathers who have an educational background of less than 2-year college compared with ones with more than 4-year university and in case that mothers who have educational background less than high school.

Sixth,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the infant daily stress and the infant problematic behaviors, the sub-factors about stress of fathers and that of mother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Especially, fastidious characteristics and the father's stress have a high correlat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the infant daily stress and the infant problematic behavior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or no correlation. However,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behaviors of anxiety/uneasiness from fastidious characteristics.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ub-factor of the infant daily stress and each sub-factor of stress. Infant daily stress has a high correlation with each factor of problematic behaviors and anxiety/uneasiness among sub-factors has a high correlation with all infant stress. The problematic infant behaviors and their sub-factor have a high correlation and especially,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hostility/aggression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all problematic behaviors of infant.

부 록

<부록 1> 아버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부록 2>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부록 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지

<부록 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그림카드 샘플

<부록 5>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평정 척도

<부록 6> 유아의 문제행동 검사지

<부록 1> 아버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_____아버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지에는 정답은 없으며 아버지 스스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며 귀댁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연구원: 배수진

지도교수: 이문옥

<부록 1> 아버지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 다음은 아버지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4세()	만5세()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명	
아버지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고졸 ②2년제졸 ③4년제졸 ④대학원졸 이상		

* 각 문항을 읽고 아이에 대한 아버님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일치하는 곳에

√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2	우리아이를 돌볼 때, 유능한 아빠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아이에게 쉽게 무엇을 시키거나 저지시킬 수 있다.					
4	대개 나의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5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6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7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8	우리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서는 그것이 어렵다.					
9	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화가 난다.					
10	나는 지난번에 나를 위해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1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으며 그리 평탄하기 못했다.					
12	아이를 가진 후, 아내와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13	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든다.					
14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15	나는 예전에 비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					
16	우리 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다.					
17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					
18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해진 적이 거의 없다.					
19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	우리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21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2	우리 아이는 놀 때 웃거나, 소리내어 잘 웃지 않는다.					

23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게 화낸다.					
24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늘상 기분이 좋지 않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울고 짜증 낸다					
2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27	우리 아이는 가끔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한다.					
28	우리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					
29	우리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30	우리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한다.					
31	우리아이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일과가 변화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32	우리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 및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을 예상외로 힘들었다					
33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돌보는 것이 더 까다롭다.					
34	우리 아이는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3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36. 아이가 아버지 자신을 성가시게 만드는 일을 잘 생각해보고, 몇 가지 정도 되는 지 세워보시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예> 빈둥거린다, 말을 잘 안듣는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운다, 싸운다 등

① 10회 이상 ② 8~9회 ③ 6~7회 ④ 4~5회 ⑤ 1~3회

<부록 2>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_____어머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간의 관계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여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지에는 정답은 없으며 어머니 스스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질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며 귀댁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월 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연구원: 배수진

지도교수: 이문옥

<부록 2>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질문지

* 다음은 어머니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4세()	만5세()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명	
어머니는 취업을 하셨습니까? (파트 타임인 경우도 취업으로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①고졸 ②2년제졸 ③4년제졸 ④대학원졸 이상		

* 각 문항을 읽고 아이에 대한 아버님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2	우리아이를 돌볼 때, 유능한 엄마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우리아이에게 쉽게 무엇을 시키거나 저지시킬 수 있다.					
4	대개 나의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5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6	아이를 가진 이후로 많은 새로운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7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8	우리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서는 그것이 어렵다.					
9	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화가난다.					
10	나는 지난번에 나를 위해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11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혔으며 그리 평탄하기 못했다.					
12	아이를 가진 후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13	나는 친구가 없고 홀로라는 느낌이 든다.					
14	사람들의 모임에서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15	나는 예전에 비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					
16	우리 아이는 주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다.					
17	우리 아이는 너무 활동적이어서 나를 지치게 한다.					
18	아이로 인해 내가 좋은 느낌을 갖거나 흐뭇해진 적이 거의 없다.					
19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	우리아이는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21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한 노력들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2	우리 아이는 놀 때 웃거나, 소리내어 잘 웃지 않는다.					

23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게 화낸다.					
24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늘상 기분이 좋지 않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울고 짜증 낸다					
2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뭐든지 빨리 배우지 못한다.					
27	우리 아이는 가끔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한다.					
28	우리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					
29	우리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30	우리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한다.					
31	우리 아이는 주변 환경이나 생활일과가 변화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32	우리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 및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을 예상외로 힘들었다					
33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돌보는 것이 더 까다롭다.					
34	우리 아이는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3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36. 아이가 아버지 자신을 성가시게 만드는 일을 잘 생각해보고, 몇 가지 정도 되는 지 세워보시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예> 빈둥거린다, 말을 잘 안듣는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운다, 싸운다 등

① 10회 이상 ② 8~9회 ③ 6~7회 ④ 4~5회 ⑤ 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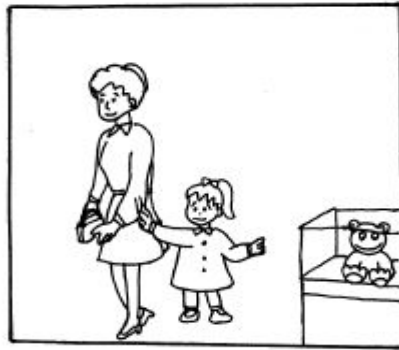
①이런 적이 있었니? 아니면 한번도 없었니? (X:없었다 O:있었다)	②이런일이 있으면 어떠 니?(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싫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속상하거나 기분 이 나쁘거나 울고 싶니?)	③그렇다면 얼마만큼 그런 기분이 드니?(동그라미 크 기의 숫자를 표시하세요)
--	--	--

13.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수 없을 때		예	아니오	1	2	3
14.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것을 못한다고 말할 때 (예: 그림그리기, 만들기, 공부)		예	아니오	1	2	3
15.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예	아니오	1	2	3
16. 어머니나 아버지가 친구나 형제보다 내가 더 못한다고 할 때		예	아니오	1	2	3
17. 선생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	아니오	1	2	3
18. 내 이야기를 엄마, 아버지가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예	아니오	1	2	3
19. 엄마 아버지께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지 못할 때		예	아니오	1	2	3
20. 엄마, 아버지가 함께 놀아주지 않을 때		예	아니오	1	2	3
21.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을 때		예	아니오	1	2	3
22. 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할 때 혹은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할 때		예	아니오	1	2	3
23. 친구와 싸울 때		예	아니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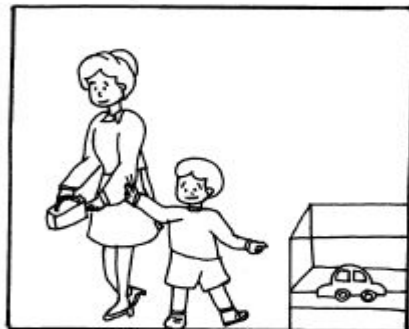
<부록 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그림카드 샘플

1.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엄마나 아빠가 사주지 않을 때

(여아용)



(남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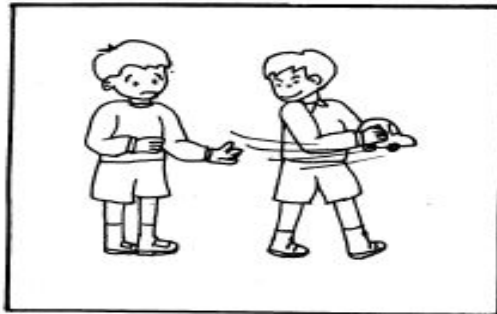


12. 친구나 동생이 장난감을 빼앗갈 때

(여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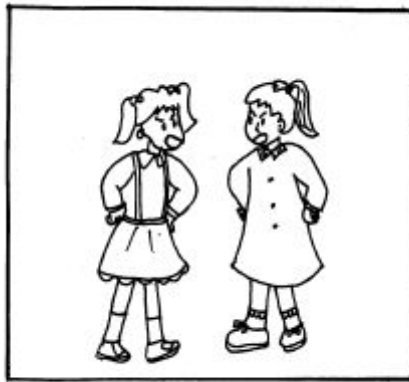


(남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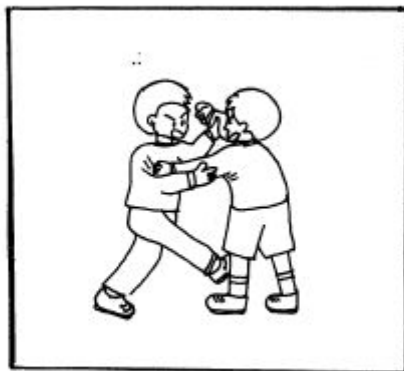


23. 친구와 싸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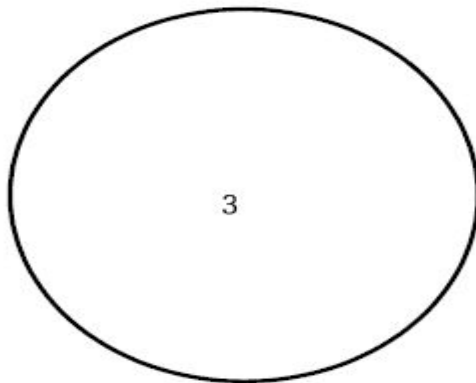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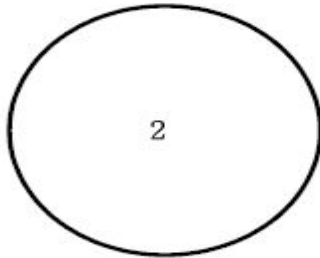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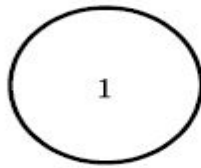
(여아용)



(남아용)



<부록 5>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척도 평정 자료



<부록 6> 유아의 문제행동 질문지

검사일:

유아 이름:

유아 나이:

유아 성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가만히 있지 못한다.	1	2	3	4	5
2.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1	2	3	4	5
3. 자기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4	5
4.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다른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걱정이 많다.	1	2	3	4	5
7.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8. 화를 잘 내고 쉽게 발끈한다.	1	2	3	4	5
9. 불행해보이고 슬퍼 보이거나 힘들어 보인다.	1	2	3	4	5
10. 얼굴과 신체에 퍽(경련)이 있거나 특정행동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	1	2	3	4	5
11. 손(발)톱이나 손가락을 물어 뜯는다.	1	2	3	4	5
12. 지시와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13. 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1	2	3	4	5
14. 새로운 물건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한다.	1	2	3	4	5
15. 까다롭거나 지나치게 꼼꼼하다.	1	2	3	4	5
16. 거짓말을 잘 한다.	1	2	3	4	5
17. 올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18.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다.	1	2	3	4	5
19. 기타 다른 언어 장애가 있다.	1	2	3	4	5
20.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	1	2	3	4	5
21. 조심성이 없다.	1	2	3	4	5
22. 다른 아이들과 장난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독점하려 한다.	1	2	3	4	5
23. 쉽게 우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아이들을 비난한다.	1	2	3	4	5
25.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26.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1	2	3	4	5
27. 특이한 성적 행동을 한다.	1	2	3	4	5
28. 다른 아이들을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때린다.	1	2	3	4	5
29.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30. 그 밖에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인다.	1	2	3	4	5